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리뷰

2025.12.(제 16호)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의 양육자 지원 효과와 과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재단의 관련 분야 연구 실적]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 평가 및 향후 과제(2025)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 성과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2024)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조부모·친인척 돌봄을 지원해 양육자의 요구를 보완하는 정책으로, 시행 2년 차를 맞아 효과와 향후 과제를 점검하였다. 이용자의 대부분이 친인척형(98.2%)임을 고려해 해당 집단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사업 참여 양육자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양육자보다 돌봄 비용 부담 감소, 양육 스트레스 경감, 일·가정 양립 개선 등 긍정적 효과를 경험했고, 전반적 양육 환경도 더 안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경제적 부담 완화를 넘어 조부모·친인척 조력자를 통한 정서·시간 자원 보완이 양육과 아동 발달 환경 개선에 기여함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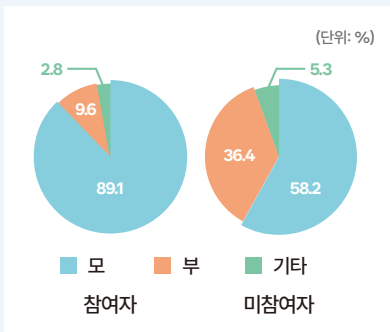
또한 현행 만 2세·월 40시간 지원 기준은 본 사업의 틈새 돌봄 취지 유지에 장점이 있으나, 실제 3~5세 양육자의 돌봄 수요와 간극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일괄적 연령·시간 확대보다는 선택 연령 지원과 조력자 교육·건강지원과 같은 서비스형 대안을 우선 검토하고, 향후 대상 확장 시 효과 변화 추적 및 돌봄 질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참여 및 미참여 양육자 대상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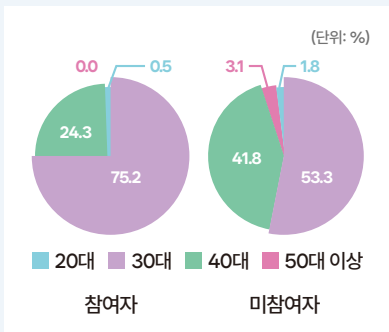
- 사업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참여자-미참여자 비교 설문조사를 실시함.

▶ 참여자: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지원받은 양육자 37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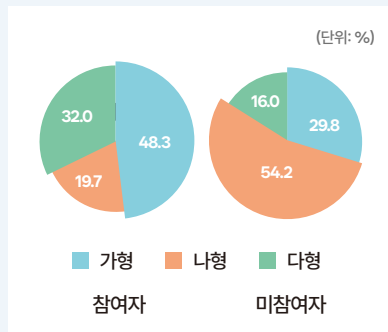
▶ 미참여자: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중 조부모·친인척 돌봄을 받지만 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양육자 225명



[양육자 유형]



[연령]



[소득수준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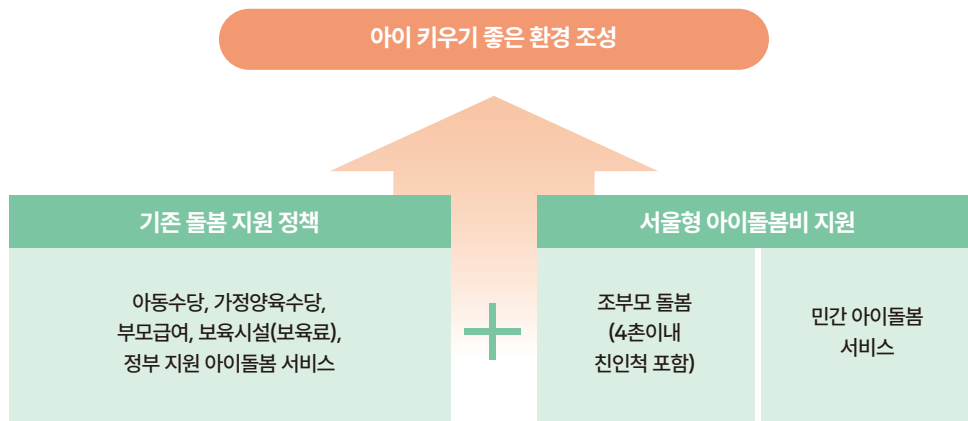
*본 자료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2025년 수행한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평가 및 향후 과제」(최현하·민지선, 2025)의 연구결과 일부 요약 자료임

1) 소득 수준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나형(중위소득 120% 이하), 다형(중위소득 150% 이하)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개요 및 이용 현황

○ 사업 추진 배경

- 서울시는 초저출생 위기 해결을 위하여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인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기존 돌봄 지원 정책이 포괄하지 못하는 양육공백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됨.
- 특히 영유아 가구의 양육공백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조력자가 조부모 등 주변 친인적인 현실을 반영하여 이들을 지원함으로써 양육자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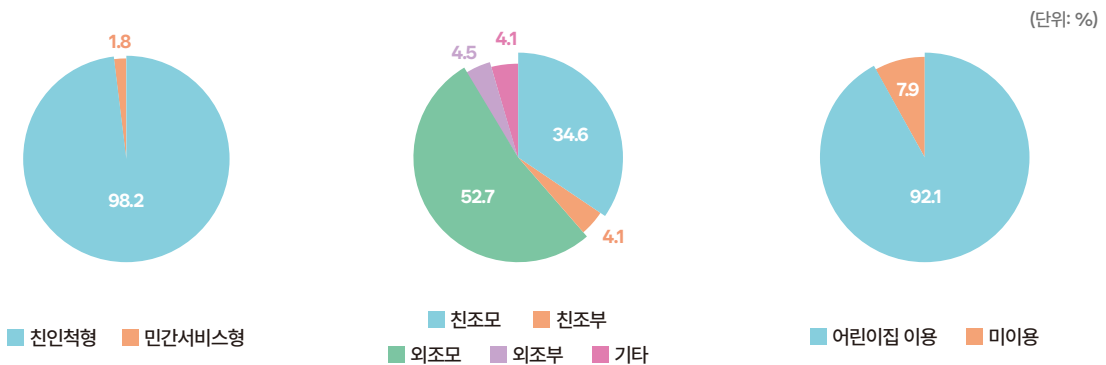
[그림 1]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의 목적

○ 사업 개요

- 사업 대상: 서울 거주 24~36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
- 사업 내용: ① 친인척형: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가 월 40시간(일 최대 4시간) 영아 돌봄 시 월 30만 원 현금 지급
② 민간서비스형: 영아 돌봄을 위해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월 최대 30만 원 이용권 지급

○ 사업 이용 현황

- 2023년 9월 사업 개시 이후 첫 지급 월인 1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아이돌봄비는 월평균 3,925건 지급됨.
- 대부분 친인척형(98.2%) 사업 유형을 이용하였고, 조력자는 조모(친조모+외조모, 87.3%)가 가장 많았음.
- 본 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92.1%) 기관 이용 시간 외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보완하는 형태로 이용됨.



[그림 2]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 이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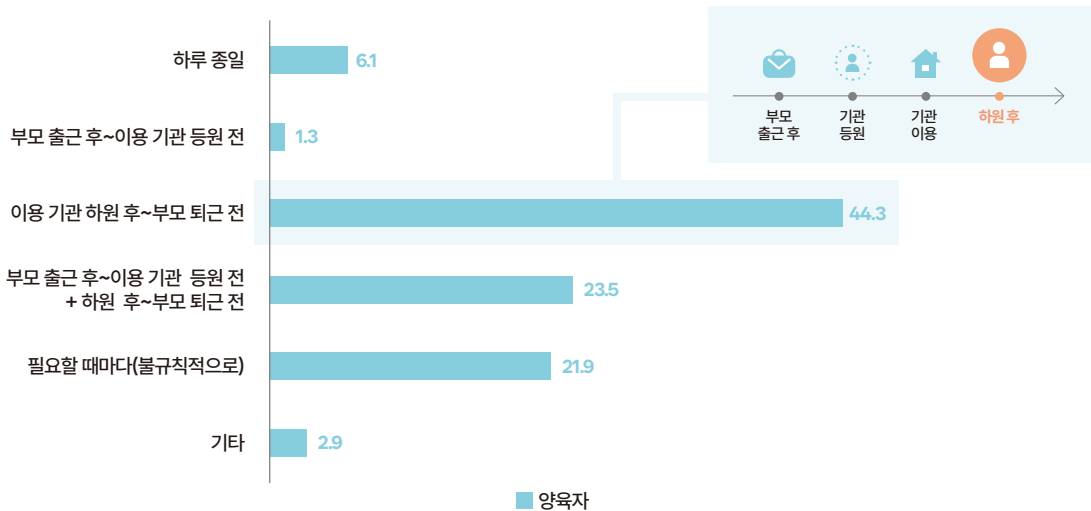
친인척형 사업 참여 가구의 양육 실태

○ 조력자에게 돌봄 지원을 부탁한 이유

- 친인척 돌봄은 ‘기관 이용 시간과 돌봄 수요의 불일치’, ‘민간 도우미 신뢰 부족’과 ‘비용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선택되는 경향이 있었음. 더불어 ‘장시간 기관 이용에 대한 기피’와 ‘급할 때 의지할 곳 부재’ 등이 맞물리며 가족 중심 돌봄을 선호하는 양상이 드러남.

○ 조력자가 주로 아동을 돌보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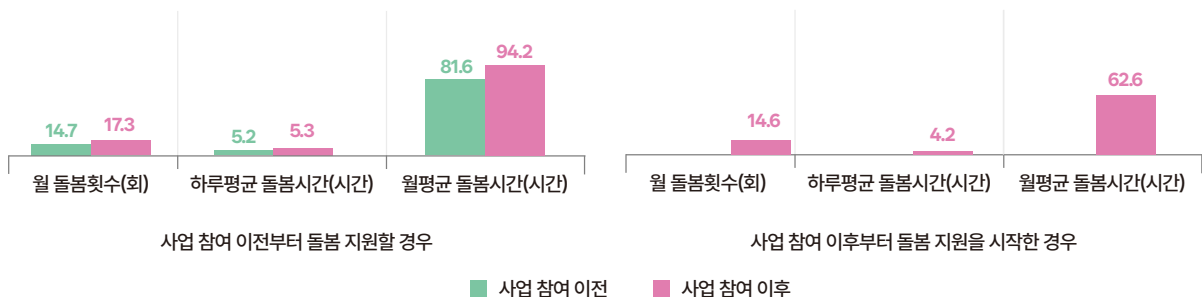
- 조력자가 아동을 돌보는 주요 시간대는 하원 후~부모 퇴근 전에 가장 집중되었으며(양육자 44.3%), 등하원 전후를 모두 포함하는 복합형 돌봄도 높은 비중을 차지함(양육자 23.5%).
- 즉, 친인척 돌봄은 기관 돌봄의 공백을 메우는 틈새 시간대 중심의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 조력자의 아동 돌보는 시간대 (%)

○ 사업 참여 이전/이후 조력자 돌봄 횟수와 시간 변화

- 사업 참여 이전부터 돌봄을 제공한 조력자는 돌봄 횟수가 2.6회(14.7회→17.3회)로 다소 증가하며 비정기적 돌봄 형태에서 정기적 돌봄 형태로 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남.
- 사업 참여 이후 새롭게 돌봄을 시작한 조력자는 월 62.6시간의 아동 돌봄을 제공했으며 기존 조력자보다 돌봄 시간이 약 31.6시간이 적었음.



[그림 4] 사업 참여 전·후 조력자 돌봄 횟수와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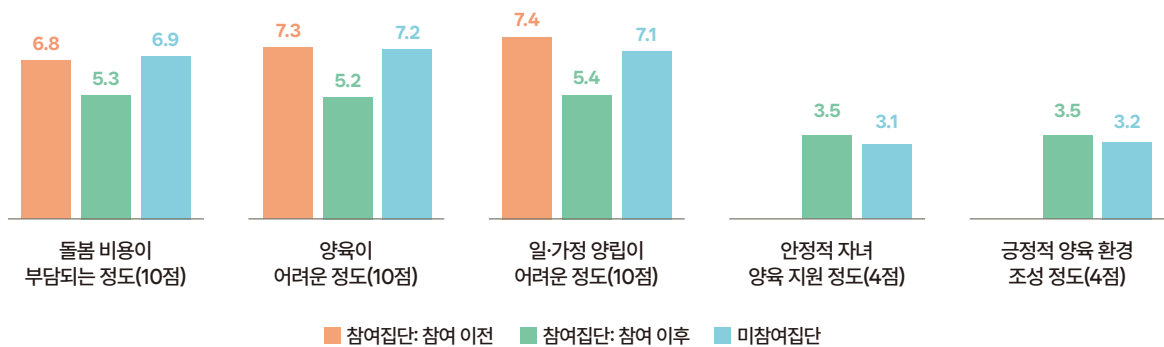
친인척형 양육자 지원 효과 분석 결과

○ 사업 참여 전·후 비교

- (돌봄 비용 부담 경감) 참여 집단의 돌봄 비용 부담 정도는 사업 참여 전 대비 22%(6.8점→5.3점) 경감했으며, 미참여 집단은 평균 6.9점으로 참여자의 사업 참여 전 수준과 비슷함.
- (양육 어려움 완화) 참여 집단의 전반적 양육 어려움은 사업 참여 전 대비 29%(7.3점→5.2점) 완화했으며, 미참여 집단은 평균 7.2점으로 참여자의 사업 참여 전 수준과 유사함.
- (일·가정 양립 어려움 완화) 참여 집단의 일·가정 양립 어려움은 사업 참여 전 대비 27%(7.4점→5.4점) 감소하였으며, 미참여 집단은 평균 7.1점으로 참여자의 참여 전 수준보다 다소 낮은 편임.

○ 사업 참여·미참여 비교

- (안정적 자녀 양육 지원 도움) 친인척 돌봄이 자녀의 안정적 양육을 지원하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참여 집단은 평균 3.5점, 미참여 집단은 3.1점으로 나타났으며, 긴급 상황 돌봄·비용 절감·양육자 휴식 보장 측면에서 참여 집단의 체감 지원 수준이 더 높았음.
- (긍정적 양육 환경 조성 기여) 아동의 정서적 안정, 발달·놀이 지원 등을 측정한 ‘긍정적 양육 환경’ 지표는 참여 집단 3.5점, 미참여 집단 3.2점으로, 참여자가 더 안정적이고 발달친화적인 양육 환경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림 5 | 사업 참여 시점(전·후) 및 참여여부(참여·미참여)에 따른 비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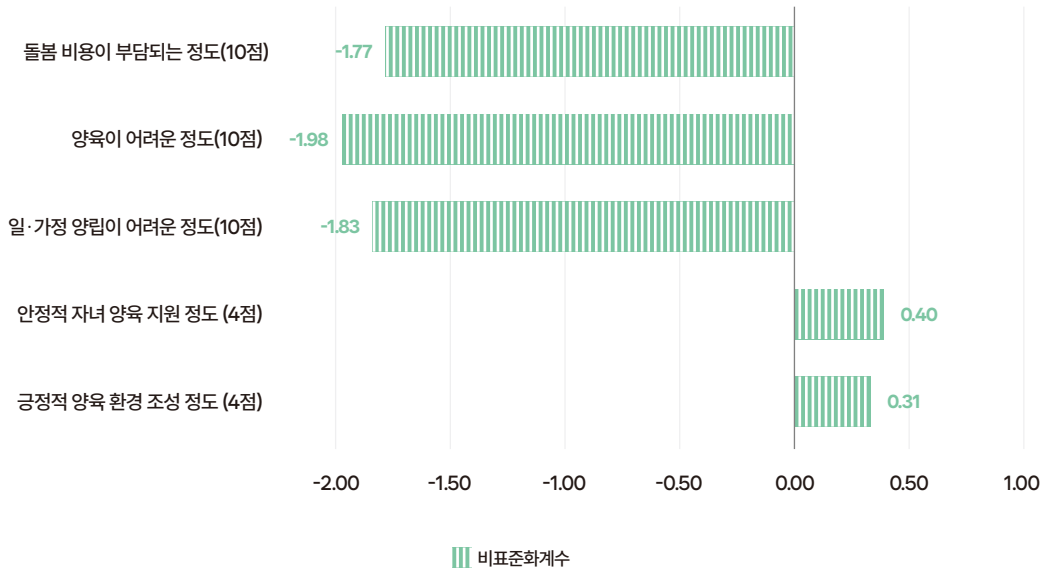
○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의 효과²⁾

- (돌봄 비용 부담 경감) 사업 참여자는 미참여자보다 돌봄 비용 부담 정도가 1.77점 낮게 나타나, 사업 참여가 양육자의 돌봄 비용 부담 완화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양육 어려움 완화) 사업 참여자는 미참여자보다 1.98점 낮았으며, 이는 사업 참여가 양육자의 양육 어려움 경감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함.
- (일·가정 양립 어려움 완화) 사업 참여자는 미참여자보다 일·가정 양립 어려움 점수가 1.83점 낮아, 사업 참여와 어려움 경감 간 유의한 연관성이 확인됨.

2)본 연구는 사업 참여자와 미참여자의 성별, 연령, 소득 수준을 매칭하여 서로 유사한 특성을 가진 대조군끼리 비교할 수 있도록 CEM(Coarsened Exact Matching)을 적용하였으며, 아동과의 관계, 성별, 연령, 교육 수준, 혼인상태, 총 가구원 수, 맞벌이 상태, 소득 기준, 조력자 동거 여부 등을 통제한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여 사업 참여 효과를 보다 정확히 추정하고자 하였음.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의 양육자 지원 효과와 과제

- (안정적 자녀 양육 지원 도움) 사업 참여자는 미참여자보다 안정적 자녀 양육 지원을 0.40점 높게 인식했으며, 이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의 경제적·정서적·시간적 지원 효과를 시사함.
- (긍정적 양육 환경 조성 기여) 참여 집단의 긍정적 양육 환경 점수는 미참여 집단보다 0.31점 높아,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이 단순 양육 공백 해소를 넘어 양육 환경의 질 개선에도 기여함을 시사함.



주 비표준화계수는 독립변수가 1단위 증가할 때 종속변수의 변화를 나타내며, 본 분석에서는 미참여자를 기준으로 한 참여자의 종속변수 값(긍정적 양육 환경 조성 정도, 안정적 자녀 양육 지원 정도,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정도, 양육이 어려운 정도, 돌봄 비용이 부담되는 정도)의 차이를 의미함. 비표준화 계수의 부호가 양수(+)이면, 참여자의 종속변수 값이 미참여자보다 더 높음을, 음수(-)는 더 낮음을 의미하며, 모든 종속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p < .001$). 아동과의 관계, 성별, 연령, 교육 수준, 혼인상태, 총 가구원수, 맞벌이 상태, 소득 기준, 조력자 동거 여부 변인 등을 통제함.

| 그림 6 | 사업 효과: 회귀분석 결과 요약

돌봄 연속성 한계 보완을 위한 과제

○ 지원 연령 및 이용 시간 제한의 의미와 한계

- 만 2세 한정, 월 40시간 제한은 틈새 돌봄 지원이라는 사업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지점으로 평가되나, 이같은 기준은 실제 이용자의 수요와 괴리가 있음.
 - 양육자의 돌봄 수요는 만 2세 이후에도 지속되며, 특히 3~5세 취학 전 아동기에는 기관 보육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틈새 돌봄 수요가 여전히 존재함.
 - 기관 보육의 기본 운영 시간은 대체로 오후 4시에 종료됨. 연장 보육 이용이 가능하나 장시간 기관을 이용하는 것은 아동의 쉼 권리와 웰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원 이후 가정 내 돌봄 수요가 지속 발생함.
 - 매일 정기적으로 오후 4시 하원 이후 양육자 퇴근 전까지 가정 내 돌봄을 받으려면 월 60시간 이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양육자의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해법이나, 현재로서는 요원함에 따라 양육자들은 가족 자원을 활용하여 노동시간과 기관 보육 이용 시간 간 간극을 메우고 있음. 그러나 본 사업의 지원 연령과 이용 시간으로는 돌봄의 연속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대안적 접근 제안

- 지원 대상을 단순히 확대하는 방식은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 운영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 이에 단순 양적 확대가 아닌, 유연한 방식으로 지원 대상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 일례로, 육아휴직 제도와 같이 지원 연령 구간 중 필요한 1년을 선택하여 활용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즉, 만 2~5세 연령 구간 중 1년을 유연하게 선택하여 지원 받는 방식임.
- 또한 지원 대상 확대의 방식이 반드시 현금 수당 지급의 연장일 필요는 없으며, 조력자에 대한 건강 지원 또는 서비스 제공 중심의 방식도 검토 가능함.

○ 사업의 단계적 확대와 돌봄의 질 관리 과제

- 사업 이용 대상의 범위를 확장할 시, 단계적으로 확장하면서 아래의 추적 연구를 병행하여 사업 추진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다른 돌봄 제도와의 관계 속에서 본 사업이 차지하는 역할에 관한 연구
 - 사업 이용 대상 기준에 따라 양육자의 양육 어려움 및 일·가정 양립 어려움 경감 효과에 차이가 있는지, 조력자의 돌봄 보상감 또는 돌봄 부담감에 변화가 있는지에 관한 연구
 - 사업 이용 대상의 확대가 아동의 휴식과 가족 간 시간 확보에 기여하는지에 관한 연구 또는 아이돌봄비가 유아의 사교육 시장 이용 비용으로 전용되지 않는지 확인하는 연구 등
- 최소한의 질을 보장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조력자 돌봄의 질 관리 주체는 양육자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는 전문가 집단이 아니므로 공공 아이돌봄비 수준의 양성 교육 등을 제공하기는 어려움. 단, 지금과 같이 아동 안전 관리 및 현대적 양육 지식 등에 대한 교육은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조력자 돌봄의 질 관리 주체는 양육자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양육자 교육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연구자: 최현희·민지선(정책개발실 아동보육정책팀)